눈물 속에서 피어난 꽃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글 · **김해자** haija21@hanmail.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의 19세 동티모르 청년은 말한다. "나는 눈물 속에서 자라났고 눈물 속에서 살고 있으며 눈물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 같으면 대학에 가겠다고 새벽밥 먹고 죽기 살기로 학교며 학원이며 종종걸음 칠 19살에, "나는 태어날 때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스리랑카의 아직 덜 자란 소녀들이 강간과 폭력의 위협 앞에서 쪽지 한 장 달랑 남기고 정글로 들어간다. 총 들고 전투를 해야만 하는 정글속이 민간인의 삶보다 더 안전하므로. 또한 평생을 지주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수확한 작물의 80%를 지대로 바치고 나면 남는 건 굶주림과 가난뿐이었던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에 있는 네팔 민중들은 왕실과 부패한 권력 대신 '반군' 편에 선다. 굶어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아시아 민중들의 고달픈 삶

아시아의 슬픔과 갈망과 더딘 민주화의 성취를 보여주는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에는 시지프스의 돌덩이를 지고 가는 아시아 민중들의 상처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 민주화라는 산봉우리를 힘겹게 오르는 더딘 발걸음과 다시 미끄러지곤 하는 뒷걸음질과 스스로 메고 가던 돌덩이에 깔리기도 하면서 낭떠러진가 싶을 때,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딛어 기필코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성지에 오르고야 마는 민중들의 투지와 희망이 교직되어 있다.

'기러기떼 모형 성장' 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아시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는 아시아.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며 나는 이 책 속을 산책하였다. 기러기가 브이(V)자로 나는 건 가운데 약하고 병든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브이(V)자 첨단에서 강한 바람과 대기의 압력을 뚫고 늠름하고 씩씩하게 날아가는 갈매기들이 있어야 한다는데 살 만하고도 더 많이 가져보자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경쟁하자고 외치는, 내가 포함된 우리 스스로 잘 뽑은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잘 살게 될 것인가, 의문을 던지며…….

내 친구 박은홍이 보내 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사실 속이 터지는 줄 알았다. 그나마 최근에 구입한 푸른 지구의와 딸아이의 지리책이 있어 끝까지 책장을 넘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좌절된 레포르마시와 공고한 반민주주의, 말레이시아〉 편을 읽다 속이 답답하면 지육지 밑의 바다를 보고 지리책의 인구와 면적과 종교와 주요 산물 등을 살펴본다.

박정희만큼이나 익숙한 수하르토 치하가 징글징글 길기도 한 〈민주화, 머나먼 길, 인도네시아〉 편을 읽으면서 지구의에 그려진 점점이 박힌 섬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 섬에 울울창창할 숲과 온갖 꽃들과 새들의 노랫소리를 상상하면서 '아체의 비극' 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강대국들의 장벽 쌓기 속에서 희생당하는 〈팔레스타인, 민주주의와 생존을 향한 인터파다〉를 읽으면서 나는, 붉기는커녕 에머랄드빛으로 빛나던 고요한 홍해의 아름다움을 떠올렸다. 〈파편화된 모자이크 문화와 지체되는 이라크 민주화〉 편을 읽으면서는 미군 폭격을 피해 도망간 곳이 하필 사막이어서 아이 둘과 함께 사막 속에 육신을 묻은 이라크의 젊디젊은 여인을 생각했다.

식민통치가 심어 놓은 종교적 쇼비니즘과 인종 · 종교적

학살이 자행되는 내전 상태인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떠오른 아름다운 진주 위에서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화롭게 차밭을 가꾸었을 타밀 원주민들을 떠올렸다. 〈세계 최대 인도 민주주의의 허와 실〉을 보면서 〈바가바드기타〉와 〈마하바라타〉 대서사시를 남긴 정신적인 민족이 어찌하여 이리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이리도 스리랑카를 못 살게 구는가,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일본으로 화살을 돌리듯 영국이나 뭐 거기 비슷한 제국주의에게 원흉이 돌려진다.

역시 강대한 나라는 죄악도 큰 거야, 생각하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분리 · 독립했어도 인도 땅덩어리는 역시 너무 커,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점에 발생한 티벳 민중들의 투쟁을 가차 없이 짓밟는 중국을 보다가 역시 중국은 너무 커, 사회주의다 뭐다 해도 너무 강대해지면 패권주의를 벗어나기 힘들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다.

아시아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보라

학자가 아닌 이상 이 책을 읽기란 매우 어렵고 아프다. 현명한 독자들이여, 부디 나처럼 자주 샛길로 빠지시기를. 지구의가 없다면 지도를 펴 놓고 아시아의 국경을 찾아가면서 혹시 역사책이나 해외여행 책이라도 몇 권 있다면 함께 읽어 보시길 바란다. 머리 사정으로 오랫동안 심각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나는 〈끝없는 군사독재, 갈 길 먼 파키스탄〉을 보면서 지리공부는 물론, 인도사까지 찾아 읽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오랜 친연성과 적대감의 뿌리 깊은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책에서 아시아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다녀온 나라의 풍광과 사람들의 얼굴과 눈망울,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검은 눈동자를 상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제언하지 않아도 이 책을 찾아 읽을 독자라면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럴 리 없겠지만 책을 읽다 민족 · 종족 간 종교 · 사상의 차이로 서로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에 질리거나 술 취한 사람 걸음처럼 비틀거리는 아시아의 행보를 보며 역사라는 게 과연 진보할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혹시 인간 본성이 이처럼 잔인하고 추악한 건 아닐까, 의구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할 때 인구 700만 중 200만 명이 죽어간 킬링필드의 캄보디아 편에서 책장이라도 덮어야만 한다면, 마침 그때 햇살의 꼬리라도 붙잡을 것처럼 봄볕 바라볼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죽을 만큼 천천히 '아시아' 라고 발음해 보라. 부드럽고 감미로운 아시아의 음률에 당신은 놀랄 지도 모른다.

처음 말 배우는 아시아계 이주 노동자처럼, 한없이 겸허하게 또박또박 한 자씩 입을 움직여야 아시아의 끝에 도달할 것이다. 혹 입모양에 마음을 집중시킬 여가가 있다면 마치 단발마의 외침처럼 온힘을 다한 함성처럼 내뱉어야 아시아가 완성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길고도 먼 여정, 아시아, 아시아! 식민 지배와 독재체제, 군부 쿠데타, 전쟁과 내전과 학살과 정부군과 반군,

땡볕에 눌러쓴 털모자의 땀 냄새가 지나가고
사탕수수 자루 인 여인의 부르튼 맨발이 지나가고 구루마 끌고 가는 부지깽이 같은 종아리가 지나가고
가슴에 면도칼 숨긴 아이들 희번덕거리는 눈초리가 지나가고
원 달러 원 달러 외치는 흙먼지 속 다물지 못하는 입이 지나가고
때 절은 스웨터 속 불룩하게 솟은 노숙의 담요가 지나가고 마약과 매춘 실어 나르는 부황 든 뺨이 지나가고
지뢰 속에 다리 묻은 주름진 아코디언 소리가 지나가고
무기 실은 트럭이 지나가고 탱크가 지나가고 전쟁이 지나가고
팔 잘린 부처가 지나가고 목 없는 시바가 지나가고
불타는 한낮 목마른 마호메트가 지나가고 (하략)

김해자 시 「아시아의 국경」 부분

분리 지배, 차별, 이 단어들을 떠올리지 않고서 아시아는 그려지지 않는다. 이 책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아시아가 피붙이처럼 저절로 공감하고 연민하고 연대하는 그 '하나' 를 발음하지 않고서는 아시아는 살과 피가 있는 땅덩어리로 육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고 싶은지 모른다.

화석화 된 기념비문 속에 갇히지 말아야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생각한다. '나라의 구체성은 사람' 이라고. 방글라데시의 레자, 네팔의 시디 버랄과 나랜드라, 미안마의 마웅저, 카렌족이라는 이따와 노는 날 노래방에 가서 김건모와 태진아의 노래를 부른다던 나와 동갑내기이던 미안마족 틴솔, 팔레스타인의 키파 판니와 바쉬르 살라쉬,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도 길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아시아 노동자와 아이를 업고 있는 아시아계 어머니들이 아시아의 얼굴이 아닌가.

내게 팔레스타인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밤새 술을 마시던 키파 판니 시인의 마른 몸짓과 우수 어린 눈빛으로 다가온다. 새벽까지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 비올 때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는 키파 판니. 잊지 않아야 하리, 화석화 된 기념의 비문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화의 산을 오르다 먼저 죽어간 친구들의 선한 눈망울을 잊어버리는 순간, 남은 길은 타락밖에 없으리.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폐렴에 걸리지 않은 이상 우산 따위는 쓰지 않아야 하리.

태국에서 캄보디아를 넘어가는 국경에서 본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지 않기 위해.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아시아 민중들의 고난과 원 달러의 가난을 잊지 않기 위해.

글 · **김해자** 시인. 시집으로 『무화과는 없다』, 『축제』가 있다.